‘아시아 돌풍’ 광주FC, 올 마지막 경기서 ‘유종의 미’

상하이 하이강과 1-1 무승부
4승 1무 1패… 동아시아 2위
16강 진출 확정은 내년으로
토종 라인업에도 주도권 장악
이정효 “외인 없이 대등했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3일 중국 상하이 푸둥 축구장에서 열린 상하이 하이강과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6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뒤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창단 첫 아시아 무대 도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가 외인들의 잇따른 부상 악재 속에서도 ‘중국 슈퍼 리그 우승팀’ 상하이 하이강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올 시즌 유종의 미를 거뒀다. 광주FC는 상하이 하이강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16강 진출을 눈앞에 뒀다.

광주FC는 지난 3일 중국 상하이 푸둥 축구장에서 열린 상하이 하이강과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6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빅톨과 가브리엘 티그랑, 브루노 올리베이라, 베카 미켈타제, 자시르 아사니가 모두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23명의 선수 명단을 모두 국내 선수로 꾸렸지만 광주FC는 특유의 색채를 잃지 않았다.

광주FC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에 정교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전진성을 드러내며 상하이 하이강을 밀어붙였고, 전반 37분에는 허율이 상대의 무더기 협력 수비를 이겨내고 선제골을 터트렸다.

리드를 잡은 광주FC는 수적 우위까지 점했다. 후반 4분 웨이젼이 경합 과정에서 신창무가 넘어지자 왼발로 얼굴을 치며 출혈이 발생했고, 아흐메드 알카프 주심이 온 필드 리뷰 끝에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존재에 일격을 당했다. 후반 28분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FC에서도 활약한 오스카르 두스 산투스 임보아바 주니오르(오스카)를 대인 방어하던 김진호가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내줬고, 결국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다.

이날 무승부로 광주FC는 리그 스테이지에서 4승 1무 1패(승점 13·골득실 +6)를 기록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골득실 +11), 비셀 고베(골득실 +4)와 승점 동률을 이뤘으나 골득실에서 순위가 갈리며 동아시아 2위를 수성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16강 진출 조기 확정 역시 무산됐다. 광주FC와 요코하마 F. 마리노스, 비셀 고베까지 세 팀 모두 최소 8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내년 2월 열리는 7차전에서 리그 스테이지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됐다.

이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기지 못해 화가 난다. 꼭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는데 이기지 못한 것이 감독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화가 난다”며 “우리 선수들이 더 강하게 밀어 붙였어야 하는데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다. 안일한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냉정한 평가를 남겼다.

하지만 이내 올 시즌을 무사히 마친 선수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광주FC는 올해 K리그1에서 14승 5무 9패(승점 47)로 9위에 오르며 잔류에 성공했고, ACLE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만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감독은 “힘든 시즌을 치렀지만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다. 외국인 선수 없이도 대등한 경기를 치른 점에 대해 우리 선수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며 “우리 선수층을 봤을 때 선발로 뛴 선수들과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에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한국 女 핸드볼, 아시아선수권 거침없는 출발

싱가포르와 1차전 47-5 대승
광주도시공사 서아루 6득점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7연패와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진출을 노리는 이계청호가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출발했다.

이계청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지난 3일(한국 시간)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아레나에서 열린 싱가포르와 제20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조별 예선 A조 1차전에서 47-5 대승을 거뒀다.

아시아 핸드볼 최강의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준 승부였다. 이계청호는 전반 2분25초에 선제 실점을 허용한 뒤 24초 만에 서아루의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5분16초에 전지연의 득점으로 역전을 이뤘고 17분53초까지 열세 골을 추가하며 14-1로 격차를 벌렸다.

전지연과 서아루를 공격에 앞세워 일방적인 흐름을 잡은 이계청호는 전반 19분59초에 한 골을 더 내줬지만 약 8분 동안 여덟 골을 몰아치며 22-2, 20점 차로 하프타임에 돌입했다.

후반에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이계청호는 약 6분간 일곱 골을 만들어내며 29-2로 격차를 벌렸고, 8분2초에 만회점을 내줬으나 다시 여덟 골을 추가하며 37-3로 달아났다.

이어 한 골을 내줬지만 우빛나와 차서연이 득점을 만들어냈고 한 골을 더 내준 뒤에도 차서연과 손민경, 윤예진 등이 공격에 가세, 여덟 골을 합작하며 47-5로 42점 차 대승을 완성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4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2024 광주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로상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 발전 공로 62명 표창

2024 광주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공로상·체육진흥상 등 5개 부문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올 한 해 동안 광주지역 장애인 체육 발전에 공헌한 체육인과 후원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4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2024 광주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종목별 가맹단체장과 장애인유관단체장, 지역 장애인 체육 선수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올해 광주 지역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62명에 대해 체육진흥상(전문체육·생활체육)과 자원봉사상, 공로상, 홍보상, 우수모범직원상 등 5개 부문으로 시장상과 의장상, 교육감상, 회장상 등 표창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 새로 발족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발전위원회 후원자들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발전위원회는 정선교 ㈜대명외식산업 대표이사가 추진단장을 맡았으며 박상규 ㈜경서 대표이사와 정형렬 ㈜이서이엔씨 대표이사가 부단장, 윤진영 ㈜록연 대표, 천병일 ㈜경서이엔지 대표, 최점미 ㈜하나로유통 대표이사 등이 위원을 맡았다.

또 장애인 체육 선수 일자리 고용에 직접적으로 참여 중인 한전KPS와 전남대 산학협력단, 한국알프스, 한국광기술원 등 기관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장애인 체육 선수 훈련 환경 조성에 대한 감사를 담아 공로상을 전달했다.

이날 시상식은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과 강선희(한전KPS·보치아) 등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전 선수단에 대한 포상금 전달식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 선수단 해단식을 겸했다.

전국장애인체전 5관왕 이화숙(광주시청·양궁)과 4관왕 김성옥(광주시청·탁구), 박승우(광주시청·사격)에게도 포상금이 주어졌고 세계신기록을 달성한 광주시장애인사격연맹과 단일 종목으로 2만점 이상을 획득한 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과 광주시장애인탁구협회에는 성취단체상이 수여됐다.

지난해 대회와 비교해 단일 종목으로 1000점 이상의 발전을 이룬 광주시장애인역도연맹과 광주시장애인태권도협회, 광주시장애인테니스협회에는 도약단체상이 돌아갔다.

한규빈 기자

페퍼저축은행, 어린이 팬들에 크리스마스 추억 선물한다

22일 IBK기업은행전 에스코트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린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22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4차전에 앞서 선수단과 함께 입장할 에스코트 키즈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에스코트 키즈는 6세에서 10세까지의 어린이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5일까지 애플리케이션 ‘AI PEPPERS’를 통해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팬은 마이 포스트 메뉴에서 ‘#에스코트키즈’를 포함한 제목으로 자녀가 공놀이하는 모습을 올리면 되고 당첨자는 17일 발표된다.

페퍼저축은행은 에스코트 키즈에 당첨된 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과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대 4매의 입장권을 제공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선수단과 사진 촬영 기회도 주어진다.

한규빈 기자